

뉴욕 젊은 음악가들, 월정사에서 '치유연주'

6월 6일 우예주 바이올리니스트 비롯한 뉴욕친구들 협연

뉴욕에서 활약하고 있는 젊은 클래식 음악가들이 의기투합해 월정사에서 새로운 클래식 음악을 선보인다.

평창 월정사는 6월 6일 오후 6시 월정사 대법륜전에서 '천년고찰 산사음악회 코리안 랩소디 in Woljeongsa'를 개최한다.

이날 산사음악회에 나서는 연주자들은 강원도 출신 음악가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우예주와 뉴욕친구들로 저마다 세계 최고의 기량을 선보이는 솔리스트로, 피아노, 비올라, 더블베이스, 바이올린, 첼로 등 10여명의 멤버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미국, 캐나다, 루마니아, 아르헨티나, 한국 등 국적도 다양한 이들은 뉴욕에서 만나 교류해온 절친한 음악친구들이다. 그 중심에는 열 여섯 살에 파가니니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카프리스 24곡 전곡을 카네기홀 아이작스틴 오디토리움에서 연주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한국인

바이올리니스트 우예주(26, 줄리어드 음대 석사과정)가 있다.

바이올리니스트 우예주는 독일 프라이부르크에서 태어났지만 춘천에서 자라나 9살에 홀로 뉴욕으로 보내져 맨해튼 음대에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인 알버트 마르코프(1933~)의 제자가 되었다. 알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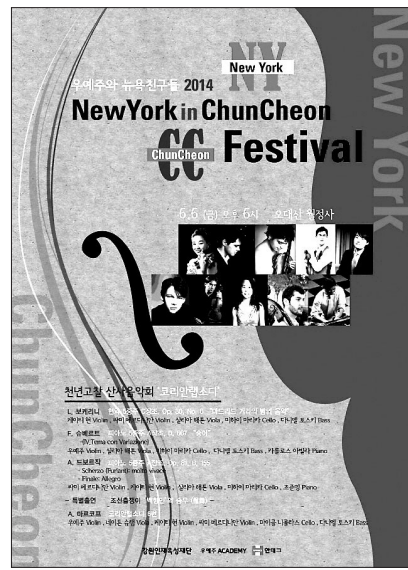
뉴욕 인 춘천 페스티벌 일환 악장 사이 백형민 승무도 선봬

트 마르코프는 바이올린의 양대 산맥인 러시아 악파의 마지막 거장이다. 우예주는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와 협연해왔으며 2008년 4월에는 북한 초청으로 평양심포니오케스트라와 협연하기도 했다. 우예주 씨는 해마다 뉴욕과 춘천을 오가는 '뉴욕인춘천' 앙상블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산사음악회에서는 마르코프의 코리안랩소디를 비롯한 보케리니의 현악 5중주, 슈베르트와 드보르작의 피아노 5중주 등을 연주하며 음악회 중에는 국립무용단장을 역임한 백형민씨의 승무(僧舞) 공연도 펼쳐진다. 승무는 불교적인 색채가 강한 독무(獨舞)로, 한국무용 특유의 '정중동(靜中動)·동중정(動中靜)'의 정수가 잘 표현돼 민속무용 중 가장 예술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월정사 산사음악회와 함께 '2014 뉴욕 인 춘천 페스티벌'이 6월 1~7일까지 연세대 원주캠퍼스, 춘천문화예술회관, 춘천 서면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도 잇따라 펼쳐진다. '2014뉴욕인춘천페스티벌'은 '뉴욕인춘천 특별기획공연', '찾아가는 재능기부 콘서트', '천년고찰 산사음악회', '스토리 콘서트'로 구성됐다.

월정사 측은 "풀벌레 소리 그윽한 초여름 밤, 마음의 달이 아름다운 월정사에서 우예주와 9명의 뉴욕친구들이 들려주는



아름다운 선율이 세월호 참사 등으로 인해 무거워진 마음을 치유해 보시기 바란다"며 불자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033)339-6800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광주불교방송 신사옥서 새 전기 마련

광주불교방송이 지역포교를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광주불교방송은 6월 26일 이민수 신임 사장(동양건설 대표이사) 취임과 동시에 새 사옥에 입주한다. 광주불교방송의 새 사옥은 광주 신도심 상무자구의 랜드마크 빌딩인 동양빌딩으로 21층 120평에 라디오 2개 방송실(주·보조 방송실)과 TV방송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아날로그 장비를 디지털 장비로 전면 교체할 계획이다. 여기에 방송출연자와 내방객들을 위한 미니카페도 마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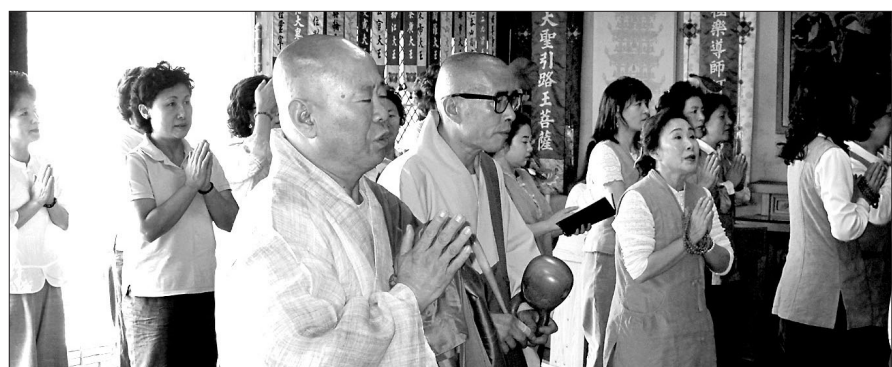
사옥 이전과 함께 광주불교방송은 지역 유대강화 프로그램을 개설한다. 지역방송의 인기프로그램인 '무명을 밝히고'의 새 진행자로 백양사 포교국장 수안 스님을 임명하고, 음악과 지역소식을 전하는 청병역할을 한다. 여기에 광주전남지역 사찰, 광주불교방송 법사단과 공동으로 사

찰순회법회를 개최해 사찰과의 유대관계를 더욱 증진해갈 예정이다. 특히 매년 3~4차례에 걸쳐 큰스님 초청법회와 지역 불교단체와의 협력관계를 증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공양 공덕 지을 수 있게해 줘 감사”

성불사, 5월 29일 지역 어르신 위한 자비나눔 '눈길'



성불사 주지 학명 스님과 성불사 신도들이 만발공양에 앞서 5월 29일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기도를 올리고 있다.

구치소 교정교화·다출산 장려 등 지역 사회를 위한 활발한 자비나눔행을 펼쳐 온 하남 성불사(주지 학명)가 창건 37주년을 맞아 어르신들을 위한 만발공양을 열었다. 성불사는 5월 29일 '세월호 희생자를 위한 추모법회 및 창건 37주년 기념법회'를 연데 이어 300여 지역 어르신들에게 만발공양을 올렸다.

공양이 이어졌다. 1976년 학명 스님의 원력으로 창건된 성불사는 지금까지 37년간 매년 5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만발공양을 열어오고 있다.

학명 스님은 "37년 전 천하 하나로 시작했을 때 지역 어르신들의 도움에 나눔실천의 원을 세웠다"며 어르신들에게 일일이 음식을 나르며 "오허려 공양 공덕을 쌓을 수 있게 해주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성불사 주지 벽담 학명 스님은 1976년 성불사를 창건한 이래 사찰 재정의 40%를 사회 공헌에 쓰고 있다. 스님은 벽담장학회 장학사업, 구치소 교정교화, 다출산 후원, 소년소녀 가장돕기 운동, 홀몸노인 후원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또 <지장경 이야기> 등 쉽게 풀이한 경전 2만권을 군법당 등에 법보시해오고 있다.

이날 학명 스님은 "성불사에는 단 하나의 손님도 없다"며 "모두가 주인으로 우리 사회를 함께 하는데 함께 나서자"고 당부했다. 스님은 또 "세월호 참사로 어린 생명들이 무참한 일을 당한 것은 우리 모두의 과오"라며 "이들이 다음 생에는 금생에서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말했다.

법회에서는 바라춤 공연과 함께 희생자들의 명복과 극락왕생을 비는 기도가 이어졌다. 법회 후 성불사 경내에서는 만발

노덕현 기자

전북 파라미타, 청소년 모악축제 개최

백일장, 사생대회, 우리문화 바로알기 골든벨도 열려



5월 24일 열린 제 18회 금산사 모악축제에 참가한 학생들이 대웅전 앞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다.

녹음이 짙어가는 김제 금산사에서 청소년들의 잔치한마당인 '청소년 모악축제'가 5월 24일 김제 금산사(주지 성우스님)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열여덟번째 맞이하는 청소년 모악축제는 21세기 주인공인 청소년들에게 자연과 인간의 친화적 요소를 제공하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도내 500여명의 파라미타 청소년들이 참가한 청소년 모악축제는 중등부와 고등부로 나뉘어 '미륵전' '모악산' '부처님과 기도' '시냇물'이라는 시제에 따라 운문과 산문, 한국화, 서양화, 만화그림의 분야에서 백일장과 사생대회가 열렸다.

대회 시작전에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또래 단원교 학생들을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간단한 추모법회를 봉행했다.

금산사 대적광전 앞에는 108배 체험, 다도체험, 단주 만들기, 연꽃등 만들기, 수묵화 그리기, 목탁 배우기 등의 다양한 체험부스가 청소년들에게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됐다.

성우 스님은 이날 "남들의 행복 위한 삶이 가장 성공한 삶"이라며 "많은 청소년들이 나와 이웃들이 다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축제현장에서는 포교사단 전북지역단 포교사들과 문화유산해설사들이 청소년들에게 금산사의 문화재를 해설하는 시간도 진행됐다. 또 전체 학생들이 참여하는 우리문화 바로알기 도전 골든벨이 열렸다. 한편, 해마다 진행됐던 청소년 음악놀이 경연대회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올해는 취소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선덕사 작은도서관 '딛음' 인문학 강좌

광주 선덕사(주지 응묵)에서 운영하는 대안도서관 '딛음'은 불자와 시민들을 위한 인문학강좌를 개설한다. 오는 6월 4일부터 7월 2일 까지 총 5회에 걸쳐 "논어를 통해 본 인간 이해와 미래 사회 고찰"이라는 주제로 이남국 선생(연천문화연구원 이사장, 신인문운동가)를 초청해 강좌를 개최한다.

신의 조화' △6월 12일 '자기 중심성의 지양' △6월 18일 '생명의 신장' △6월 25일 '인간의 진보' △7월 2일 '사회의 진보' 등으로 진행된다.

광주전남인드라마생명공동체와 함께 개최하는 이번 강좌 △6월 4일 '물질과 정

첫 강의를 진행하는 이남국 선생은 전북 장수 좋은마을에서 된장을 만들면서 마을공동체를 실현하고 있으며, 인문학을 통해 새로운 사회, 새로운 운동에 대한 담론을 널리 펼치는 신인문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선운사 도솔암, 아미타불 및 후불탱 봉안

삼장지장기도도량 고택 선운사 도솔암 수광전에 아미타불과 후불탱화가 봉안됐다. 선운사 도솔암(주지 법만)은 5월 25일 도솔암 수광전에서 선운사 원로 재관 스님을 증명법사로 재벽, 범여, 대우, 대원, 도완 스님 등 10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아미타부처님과 후불탱화, 일광보살탱화 점안식을 봉행했다.

한편 같은 날 선운사 지장보궁에서는 1000일기도 중 100일기도 회향법회와 200일기도 입재식을 봉행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군산 성흥사, 역사전 건립 기공식

군산 성흥사(주지 송월)가 5월 29일 역사전 기공식을 개최했다. 김승수 신도회장, 박순호 군산불교대학 학장, 김용화 전북 도의원등 불자100여명이 동참한 이날 기공식은 상단 권공에 이은 경과 설명, 축사, 법어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송월 스님은 "새 가람에서 역사전 기공식을 갖게되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전법과 포교에 노력해 내실있는 도량으로 가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존의 도량외에 성산면에 새로운 부지를 마련해 나한전, 요사를 준공한데 이어 주법당인 역사전을 건립하게 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 (관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영산재 보존도량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9:00
- 수강대상 : (1)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2)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육천법음대 졸업, 중앙승가대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소장: 처명)

대구불교의식 범음·범패·교육원 학 인 모 집



- ◆ 범불경력 50년 대구팔공산 소리 최종보유자 동현스님!
- ◆ 사모곡,회심곡,백발가,참회곡,부모은중경(음반취입 632호) 제2기 교육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수시모집)
-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 교육대상 : 비구, 비구니스님, 또는 사찰에 항시 상주하시는 스님이 계시지 않아 사찰운영에 어려움이 많으신분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지도해드리겠습니다.
- ◆ 초 급 반 : 교육과정 - 초발심자경문, 천수경, 반야심경, 도량서, 종성, 조석예불, 행선죽원, 사시마지불공, 관음시식
초급(일반)수업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12시까지
초급(속성)수업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5시까지
교육기간 - 초급일반 : 10개월 / 초급속성 : 5개월
- ◆ 중 급 반 : 교육과정 - 시련,대령관육, 시왕불공, 시시편, 봉송편, 상가염불 불상전안, 전전안, 안택고사, 방생편
중급(일반)수업 :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 12시까지
중급(속성)수업 :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5시까지
교육기간 : 중급일반 : 15개월 중급속성 : 10개월
- ◆ 작법 (3개월) :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 5시까지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오공양작법)

- ◆ 자세한 문의사항은 교육원에 직접나오셔서 상담해주시길 바랍니다.
- ◆ 교육원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 2동 871-1번지
- TEL 053)781-4200 / 팩스 053)851-2666 / H·P 010-2547-4200

원장 동현 합장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효능

마기목

대진스님(참나선원)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기목 지팡이를 짚으면 굵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낳는 여인이가 방안에 마기목 가지들 두기만 해도 수도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기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기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한달 분 60봉 두 재 분량) 오침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기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초, 방영
- 2010년 10월24일 일요일 - 오전 7시 20분 MBC TV "고향이 좋다" '마기목, 효능방영
- 2013년 10월16일 수요일 - KBS1 TV 05시50분 내고향스페셜 설악산 백담사마을 마기목 효능방영

하루에 한 잔 마기목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몸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원머리를 감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등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여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신), 조절중,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목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르신들 풀어서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므로)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기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민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상담문의 031-773-7838
※ 수행선원이나 강연스님께 대공공양하실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

■ 농협 : 227027-51-090791 (예금주 : 남공성교) · 제조원 : 구암식품 · 식품제조업 : 대구 북00619호